

사랑가움 -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

《잠곡필담潛谷筆譚》

《종덕신편種德新編》

《사람다움 -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면서...

실학박물관은 실학 유물을 발굴 조사하고 한편으로 기증·기탁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로서 실학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간행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 대중에 실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 간행하는 《사람다움 -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김육金堉(1580~1658) 선생의 저술 《잠곡필담潛谷筆譚》과 《종덕신편種德新編》을 모아 현대어로 번역하여 엮은 것입니다. 청풍김씨淸風金氏 김육가문金堉家門의 유물을 우리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잠곡 김육의 저술을 일반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조선시대 최대 개혁이라 할 수 있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주도했던 김육 선생은 조선을 대표하는 경세經世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육은 사림파의 거두로서 개혁정치를 추진하다 화를 당한 기묘명현己卯名賢 김식金湜(1482~1520) 선생의 현손으로 충청도관찰사·예조판서·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특히 좌의정으로 충청도에 대동법 시행을 주관하였고 전라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는데에도 힘썼습니다. 대동법 시행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상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육은 경세經世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동법은 물론 새로운 역법인 시현력時憲曆의 도입과 실시에 앞장서고 수레·수차 및 동전의 도

입과 활자의 제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세기 ‘실학의 선구’에 해당되는 대표적 학자·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발간하는 《사람다움 -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선생께서 우리나라 역대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행적과 일화를 모아 엮은 《잠곡필담潛谷筆譚》, 중국 고전에서 선행의 자취 및 관리들의 모범적 행정과 사법 처리 과정 등을 뽑은 《종덕신편種德新編》을 번역 합간合刊하는 책입니다. 특히 영조가 ‘귀중한 책이니 언해하고 발간하여 여러 사람이 쉽게 읽도록 하라’고 할 만큼 국가적 관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번역 소개되는 《잠곡필담》·《종덕신편》은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보편적 덕목인 ‘사람다움’을 맛보게 하는 고전일 뿐 아니라, 조선 후기 관료 사회의 의식 구조와 한문학 연구에도 적지 않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잠곡 선생 후손 김성구 선생과 번역을 맡아 주신 김상수 선생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물관 관계자의 수고도 아울러 치하합니다.

2012. 12.

실학박물관장 김시업

## 【일러두기】

- ※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 ※ 이 책의 번역은 김상수씨가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열과 편집을 진행하였다.
- ※ 번역 원문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다.
-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필요한 곳에 주석을 달았으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석에는 한문을 괄호에 병기하였다.
- ※ 《잠곡필담》에는 원래 편차를 나누지 않았으나 전체 체제를 고려하여 상·하로 구분하였으며 한문 원전은 실지 않았다.
- ※ 본 책자에 들어간 삽화는 청풍김씨 김육가문 문중에서 제공한 것이다.
- ※ 주석을 붙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줄의 끝부분에 |로 표시하였다.
- ※ 각 편의 제목은 원래 없지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자 제목을 달아 두었다.
- ※ 이 책에 나오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 : 책명, 〈 〉 : 편명, □ : 음은 다르지만 뜻이 통하는 어구나 한자
  - ‘ ’ : 강조·인용, “ ” : 대화

## 편차 編次

발간사 《사람다움 -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면서

### 제 1부 《잠곡필담 潛谷筆譚》

《잠곡필담 潛谷筆譚》 \_ 상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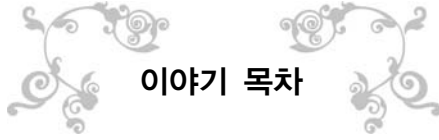
《잠곡필담 潛谷筆譚》 \_ 하下

### 제 2부 《종덕신편 種德新編》

《종덕신편 種德新編》 \_ 상上

《종덕신편 種德新編》 \_ 하下

《종덕신편 種德新編》 \_ 석의록 釋疑錄



# 이야기 목차

## 제1부. 잠곡필담 潛谷筆譚

### 《잠곡필담》 \_ (상)

뇌물을 물리친 완평부원군 完平府院君  
이원익 李元翼 \_ 13

남편만큼 청렴한 완평부원군의 부인 \_ 15

좌의정 윤두수 尹斗壽의 후덕함 \_ 16

광해군의 폐모에 항의한 이항복 李恒福 \_ 17

비판보다 칭찬을 중시한 정승 윤두수 \_ 19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한 대부 大夫 [김권 金權] \_ 20

중봉 重峰 조현 趙憲을 사모한 숙천 기녀 \_ 22

금강을 건너며 지은 조현 趙憲의 시 \_ 24

절의로 표창사에 배향된 조현 趙憲 \_ 26

조현 趙憲과 칠백의사의 비석 \_ 29

하늘이 내린 홍의장군의 기개 \_ 30

쇠사슬도 끊은 김덕령 金德齡 장군 \_ 32

기개와 전술이 뛰어난 이희건 李希健 \_ 35

도적을 물리친 대구의 장사 백거추 白巨猷 \_ 37

전대로 적군을 제압한 성징성 澄 \_ 40

절박한 생계로 도적이 된 양민의 피 \_ 41

절개를 지킨 고려의 유신 조윤 趙胤 \_ 43

안음의 효자로 이름난 선비 조현 趙憲 \_ 44

임금님이 감동한 효자 박장원 朴長遠 \_ 45

아버지 대신 포로가 된 효자 갑생 甲生 \_ 47

말을 거꾸로 탄 도학자 최유해 崔有海 \_ 48

판서 정경세 鄭經世 \_ 50

독서당에 간 장원급제자 한준겸 韓俊謙 \_ 51

재치의 한준겸 韓俊謙 \_ 53

성주 星州 사람 박립 朴瑩의 천재 아들 \_ 54

도깨비를 물리친 여주 목사 홍득일 洪得一 \_ 55

귀신의 말을 엿들은 사람 \_ 56

구렁이에 물린 너구리를 살린 박하익 \_ 57

귀신이 감동한 서극일 徐克一의 심지 心志 \_ 58

정축년의 독독 毒毒귀신 \_ 60

유희량 柳希亮의 딸이 낸 선조의 목소리 \_ 61

죽은 선조의 말을 전한 박문명 朴文溟 \_ 62

이괄의 난을 예언한 남응민 南應敏 \_ 63

굴에서 겨울을 지낸 법주사의 중 \_ 64

속리산 복천사의 기우제 \_ 65

만수패 萬壽牌와 천추패 千秋牌 \_ 67

1640년(인조 18)의 우박 \_ 68

1640년의 천재지변 \_ 69

종각을 두드린 중 \_ 70

《주역 周易》을 새롭게 읽은 박진현 朴震賢 \_ 71

마귀총독의 손자 마순상 麻舜裳 \_ 73

이운연 李雲衍의 환생한 아들 \_ 74

임진왜란에 죽은 이철평 李哲宏 \_ 76

꿈에 왕실의 조상을 만난 박지영 朴之英 \_ 78

자명종을 만들어 낸 유흥발 劉興發 \_ 80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은 김판서 [김상헌] \_ 81

의주부윤 이완 李堯의 실책 \_ 83

염병을 앓고 저승에 다녀온 홍내범 洪乃範 \_ 84

공주 公州에서 환생한 칠손 七孫 \_ 85

### 《잠곡필담》 \_ (하)

해주에서 장원급제한 김인 金寅 형제 \_ 86

문천상을 인용하여 급제한 허관 許灌 \_ 87

내 옷을 물려입은 정세보 鄭世輔 \_ 88

호랑이 꿈과 과거 급제 \_ 89

별시무과의 장원한 이익달 李益達의 기개 \_ 90

권율과 이항복이 아낀 정충신 鄭忠信 \_ 92

천하장사 박형 朴炯 \_ 94

죄를 용서받은 장사꾼 논한論漢 \_ 96  
 역관 김희삼金希參의 오랑캐 이야기 \_ 98  
 평안북도 정주의 납정정納淸亭 \_ 100  
 유심의 해배를 예언한 장도사 \_ 102  
 각산사의 세 가지 천하장관 \_ 104  
 과거시험을 농단한 이이첨李爾瞻과 김안노金安老 \_ 106  
 정성어린 제수에 보답한 임금님 \_ 108  
 도적을 물리친 남원의 가난한 선비 \_ 110  
 옷에 담긴 이치 \_ 113  
 미신을 물리친 김이상金履祥의 기개 \_ 116  
 잊혀진 박철수朴鐵壽의 충정 \_ 118  
 기상이 고결한 김이익金以益의 처 \_ 119  
 노수신盧守愾의 지우를 받은 평민 안경장安慶昌 \_ 120  
 잠곡에서 만난 호랑이 \_ 121  
 호랑이를 물리친 수증사의 중 성잠性潛 \_ 123  
 초목의 지각 \_ 124  
 부사 이명립李謨立의 심양 진격 전술 \_ 125  
 심하전투에서 버려진 비장의 계책 \_ 127  
 집구시集句詩는 어렵고도 쉬운 것 \_ 129  
 기우제 전날 꿈에 나타난 이원의李元翼 \_ 131  
 한강寒岡 정구鄭述도 탄복한 오윤겸吳允謙 \_ 133  
 나이가 같은 사람들의 운명 \_ 134  
 운수가 같은 사람들 \_ 135  
 찬성 이파李坡의 악장론樂章論 \_ 136  
 명나라 사령관 만세덕萬世德의 엄정한 통솔 \_ 137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강태공姜太公 \_ 138  
 완성하지 못한 태천의 수로공사 \_ 139  
 우리나라의 무논 이상법 \_ 140  
 백성에게 유용한 화폐 유통 \_ 141  
 선조와 사헌부 대관 \_ 143  
 시현력時憲曆의 도입 시도 \_ 144  
 91세 이경한李景漢의 장수 비결 \_ 146  
 효종이 박황朴潢에게 내린 금가락지 \_ 147  
 두 겹 눈동자를 가진 남곤南袞과 정명수鄭命壽 \_ 148  
 109세 점술가의 취미 \_ 150  
 122세 장수 할머니 \_ 151  
 106세의 붓 장인 배봉금裴鳳今 \_ 151

누각을 성큼 올라가는 장수 노인 \_ 152  
 95세 수군 전중발全中發 \_ 152  
 명나라 의종의 죽음을 예언한 봉사 \_ 153  
 땅이 갈라진 칠곡漆谷의 이변 \_ 154  
 악비장군 휘하 배의背鬼의 뜻 \_ 155  
 갑인년 마다 개축한 흥경각欽敬閣의 운명 \_ 156  
 관료들의 답례품 주고받기 \_ 157  
 소인의 유래와 관리의 호칭 \_ 158  
 부모상의 명칭 혼선 \_ 159  
 바다가 얼었다는 보고 \_ 159  
 화폐 유통에 대한 찬반 토론 \_ 160  
 세수를 위한 전지제도田地制度의 개혁 \_ 161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厚의 무공 \_ 162  
 벌레 퇴치법 \_ 163  
 효험이 있는 민간요법 \_ 164

## 제2부 종덕신편種德新編

영조임금의 《종덕신편》 서문 \_ 169  
 영조임금의 문정공(김육) 치제문 \_ 172  
 《종덕신편》의 머리에 쓰다 \_ 173

### 《종덕신편》 \_ (상)

초나라 재상 손숙오孫叔敖의 어진 마음 \_ 175  
 어울한 사람을 풀어준 준불의雋不疑 \_ 177  
 재화를 나눠준 마원馬援 \_ 178  
 곡식 창고를 연 한소韓韶 \_ 179  
 베풀기 좋아한 부치符稚 \_ 180  
 참새의 보답을 받은 양보楊寶 \_ 181  
 효심과 선행으로 아내를 얻은 양옹백羊雍伯 \_ 182  
 정직한 관리 함창闕敞 \_ 183  
 모모毛賁가 방생한 거북의 보답 \_ 184  
 가난한 유응지劉凝之의 베품 \_ 184  
 현주자사 은중감殷仲堪 \_ 185  
 방생한 거북의 인사를 받은 엄태嚴泰 \_ 186

남몰래 베푼 이사겸 李士謙의 겸양 \_ 187  
 포로라도 산모는 풀어준 정명진 程名振 \_ 187  
 최인사 崔仁師의 공정한 옥사 처리 \_ 188  
 반란군 중 억울한 이를 풀어준 적양공 狄梁公 \_ 189  
 법 집행에 신중한 사법참군 司法參軍 제한 齊翰 \_ 190  
 백금도 탐하지 않은 협객 이면 李勉 \_ 190  
 주운 물건을 돌려준 배진공 裴晉公의 음덕 \_ 191  
 자라의 보은을 받은 위단 韋丹 \_ 193  
 음덕으로 수명이 연장된 유홍경 劉弘敬 \_ 196  
 저승사자에게 수명을 연장받은 이질 李質 \_ 198  
 하늘의 운수를 바꾼 범명부 范明府의 덕행 \_ 199  
 억울한 죽음을 없애려 조서를 고친  
 장거한 張居翰 \_ 201  
 보화의 주인을 찾아준 두우균 竇禹鈞 \_ 202  
 포로를 함부로 죽이지 않은 조빈 曹彬 \_ 203  
 생명을 소중히 여긴 조빈 曹彬 \_ 204  
 도둑의 딸을 가르친 이항 李沆 부부 \_ 205  
 백성을 위해 공문서를 불태운 왕단 王旦 \_ 206  
 황검계의 선행에 경배한 장영 張詠 \_ 208  
 중의 무고함을 밝혀준 백민중 白敏中 \_ 210  
 곤궁한 사람을 도와준 한기 韓琦 \_ 212  
 장례 풍습을 바꾼 한기 韓琦 \_ 212  
 초상 당한 친구를 도운 범요부 范堯夫 \_ 213  
 베푸는 것을 좋아한 범중엄 范仲淹 \_ 214  
 타향 선비의 장례비를 대준 범중엄 范仲淹 \_ 215  
 매장 풍습을 바꾼 범요부 范堯夫 \_ 216  
 불효자를 타이른 설규 薛奎 \_ 216  
 귀신이 보답한 정인패 程仁霸의 엄정함 \_ 217  
 가난한 관리를 도운 조청현 趙淸獻 \_ 219  
 조청현 趙淸獻의 선행 \_ 220  
 방언언 方謹言의 사람됨 \_ 220  
 수백만의 생명을 구한 송상 宋庠 형제 \_ 221  
 형벌 집행에 엄정한 전약수 錢若水 \_ 223  
 스승의 가족을 돌본 팽여리 彭汝礪 \_ 226  
 선친의 뜻을 따른 위과 魏顥 \_ 227  
 어부에게 구조된 오자서 伍子胥 \_ 228  
 패수의 억측으로 죽은 효부의 재앙 \_ 229

백성들에게 봉록을 나눠준 복담 伏湛 \_ 230  
 법집행에 공정한 원안 袁安 \_ 231  
 도적도 함부로 죽이지 않은 조희 趙熙 \_ 232  
 주인의 손자를 키운 이선 李善 \_ 233  
 형벌의 남발을 막은 사필 史弼 \_ 234  
 서생을 장사지낸 역장 왕돈 王恂 \_ 235  
 생명 은인에게 보답한 이대량 李大亮 \_ 236  
 물속에서 친구의 시체를 찾은 나도종 羅道暉 \_ 237  
 공정한 사법관 당림 唐臨 \_ 238  
 올곧은 법집행으로 존중받은 서유공 徐有功 \_ 239  
 학비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관직 郭質 \_ 240  
 어려운 이웃을 도운 최연 崔暹 \_ 241  
 옥대를 찾아준 백민중 白敏中 \_ 242  
 베품과 신의를 좋아한 양손태 陽孫泰 \_ 243  
 청빈한 범원지 范元之 \_ 244  
 적군을 토벌한 정언빈 程彥賓의 소원 \_ 245  
 인명의 소중함을 실천한 유고 劉翹 \_ 246  
 평등한 조세제도를 실현한 왕영 王永 \_ 247  
 하늘의 단증성 같이 엄정한 왕호 王祐 \_ 248  
 술선수범하여 고을을 운영한 진요좌 陳佐佐 \_ 250  
 형벌에 신중했던 옥사장 장경 張慶 \_ 251  
 첩의 기구한 사연을 풀어준 한기 韓琦 \_ 252  
 백금으로 산 여인을 보낸 왕증 王曾 \_ 254  
 생명을 존중한 구양관 歐陽觀 \_ 255  
 정치를 중시한 문학자 구양수 歐陽脩 \_ 256  
 60만 이재민을 돌본 부필 富弼 \_ 257  
 천 명의 생명을 구한 호숙 胡宿 \_ 258  
 복해의 의장으로 사람을 도운 오규 吳奎 \_ 259  
 왕비의 친척을 엄벌한 진계 陳洎 \_ 260  
 오만 명의 유민을 구제한 등원발 滕元發 \_ 261  
 일가족을 구한 주승일 朱承逸 \_ 262  
 성도지사 조변 趙抃 \_ 263  
 항복한 사람을 죽이지 않은 범백록 范百祿 \_ 264  
 청모전을 갇아준 훈장 주식 朱軾 \_ 265  
 몸 값을 대신 낸 황여즙 黃汝楫 \_ 266  
 64세에 자식을 얻은 시방미 時邦美 부친 \_ 267  
 법에 따라 진범을 찾은 양제 楊提舉 \_ 268



선행의 보답을 받은 장원의 蔣員外 \_ 270  
 임안부의 감독관 주필대 周必大 \_ 271  
 억새를 납부받은 우운문 虞允文 \_ 273  
 선행으로 자식을 얻은 원소 袁韶의 부친 \_ 274  
 8만석으로 백성을 구제한 사병직 史秉直 \_ 276  
 5만 명을 살린 엄실 嚴實 \_ 278  
 포로를 내 백성처럼 여긴 염희헌 廉希憲 \_ 280  
 반란군을 감동시킨 섬사정 贍思丁 \_ 281  
 건주 建州를 구한 장태부 章太傅의 부인 연씨 廉氏 \_ 283  
 원나라를 정복한 서달 徐達 \_ 284  
 인명을 증시한 뱃사공 양영 楊榮의 조부 \_ 286  
 현령 앞에 무릎꿇은 아전 양자징 楊自徵 \_ 287  
 도적도 함부로 죽이지 않은 사도사 謝都事 \_ 288  
 감형제도를 실시한 도강희 屠康愷 \_ 289  
 이익보다 의리를 증시한 도응준 屠應峻 부자 \_ 290

《종덕신편》 \_ (하)

전한시대 왕옹유 王翁孺 \_ 291  
 사형집행에 눈물을 흘린 성길 盛吉 부부 \_ 291  
 죄질에 따라 형을 집행한 위인부 魏仁溥 \_ 292  
 백만군대를 이끈 등우 鄧禹 \_ 292  
 법제를 알고 계획을 낸 섭모득 葉夢得 \_ 293  
 계살문 戒殺文을 지어 경계한 유휘 俞偉 \_ 295  
 악주 鄂州의 악습을 알린 소식의 편지 \_ 296  
 사문도의 죄수를 옮긴 마묵 馬默 \_ 298  
 친구의 어머니를 봉양한 진희량 陳希亮 \_ 299  
 가난한 벼를 도운 구양수 歐陽修 \_ 299  
 증거 없이 처벌하지 않은 소민지 蕭敏之 \_ 300  
 빈객 접대에 생물을 쓰지 않은 여공 呂公 \_ 300  
 이웃집 딸을 구제한 증로공 曾魯公 \_ 301  
 딱지 쓴 사람 수백명을 풀어준 증로공 曾魯公 \_ 303  
 생물을 먹지 않은 소동파 蘇東坡 \_ 304  
 세 번 장원급제한 풍경 馮京의 아버지 \_ 305  
 사형 대신 가산을 몰수한 호칙 胡則 \_ 306  
 진실 규명을 증시한 형무관 전족 錢卽 \_ 307  
 지조와 덕행이 있는 조린기 趙隣幾의 하인 \_ 308  
 금비녀를 찾아준 학동 팽사영 彭思永 \_ 310

하인이 된 전 현령의 딸을 구제한 종리 鍾離와  
 허군 許君 \_ 311  
 소동파가 기록한 의리지킨 신랑 이야기 \_ 313  
 정혼 약속을 지킨 요웅 姚雄과 딸 \_ 315  
 값비싼 옥을 돌려준 임적 林積 \_ 316  
 행정절차보다 생명을 증시한 범여규 范如圭 \_ 318  
 잠자는 새는 쓰지 않는다는 뜻을 실천한  
 왕질 王質 \_ 319  
 가난 때문에 지은 죄에 관대한 왕질 王質 \_ 320  
 법에 따라 사실을 규명한 손입절 孫立節 \_ 321  
 가난한 동료 대신 벌을 받은 왕선 王繕 \_ 322  
 과주의 호조 진희영 陳希穎 \_ 324  
 도둑을 누우치게 한 우령의 于令儀 \_ 326  
 승산의 주인이 된 장효기 張孝基 \_ 327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킨 유 劉 유대 留臺 \_ 329  
 여비를 털어서 상례를 도운 사도 查道 \_ 331  
 관공비로 빈민을 구제한 심문통 沈文通 \_ 332  
 이웃의 억울함을 호소해 풀어준 아전 \_ 333  
 이재민을 구제한 진지 陳智 \_ 335  
 《구황록 救荒錄》의 주인공 왕형 王玆 \_ 336

《종덕신편》 \_ (석의록 釋疑錄)

친어미를 가린 황패 黃覇의 지혜 \_ 337  
 친부를 가린 이승 李崇 \_ 338  
 300명 중에서 범인을 가려낸 장상 蔣常 \_ 339  
 30마리 소의 주인을 밝힌 배자운 裴子雲 \_ 340  
 살인사건의 범인을 가린 장송수 張松壽 \_ 342  
 달리기로 범인을 가린 부용 符融 \_ 343  
 소장 내용으로 무고를 가린 어사 \_ 344  
 정위 병길 郢吉 \_ 346  
 실험으로 누명을 벗긴 원자 袁滋 \_ 347  
 소름의 수령 주우 周紆의 실리 \_ 349  
 뱃사람의 절도를 밝힌 염제미 閻濟美 \_ 350  
 유언장에 담긴 속뜻을 밝힌 사공하무 司空何武 \_ 351  
 억울한 누명을 밝힌 공상순 孔相循 \_ 353  
 남편을 살해한 부인을 붙잡은 진육운 晉陸雲 \_ 355  
 소 도둑과 파 도둑을 판별한 장원제 張元濟 \_ 356

위장한 도적떼를 잡은 여원옹 呂元膺 \_ 358  
 신발 도둑을 가려낸 왕개 王潛 \_ 359  
 도적을 능숙히 알아본 동행성 董行成 \_ 360  
 서체 書體로 위조범을 판별한 장작 張鷟 \_ 361  
 무덤의 보물을 찾은 소무명 蘇無名 \_ 362  
 앵두 도둑을 가린 언초 彦超 \_ 365  
 재산 소송을 공정히 처리한 고헌 顧憲 \_ 366  
 소의 혀를 자른 범인을 찾은 포중 包拯 \_ 367  
 참외밭 주인의 무고를 적발한 당공 唐公 \_ 368  
 원무현령 노백통 路伯通 \_ 369  
 닭의 주인을 가린 부계규 傅季珪 \_ 370  
 비단의 입자를 가린 설선 薛宣 \_ 371  
 창주 자사 왕유 王洙 \_ 372  
 옹부자사 이혜 李惠 \_ 373

은폐된 살인사건을 밝힌 장준 莊遵 \_ 374  
 하음현령 고겸지 高謙之 \_ 375  
 위조문서를 가려낸 장초금 張楚金 \_ 376  
 도사의 간통을 밝힌 이결 李傑 \_ 377  
 살인사건을 밝힌 고유 高柔 \_ 378  
 얼굴빛으로 범인을 찾은 지호질 志胡質 \_ 379  
 부부의 공모를 밝힌 두아 杜亞 \_ 380  
 창고의 결손을 막은 위단 韋丹 \_ 382  
 떡의 수량을 계산해 낸 손보 孫寶 \_ 383  
 양아들의 탐욕을 심판한 장희승 張希崇 \_ 384  
 돼지 실험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한 장거 張舉 \_ 385

김상헌의 《종덕신편》 발문  
 《종덕신편》을 읽고 나서 쓰다 \_ 386